

##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Book

### 안전문화 – 이론과 실천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저  
교문사 펴냄 | 2020



### 국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안전문화를 다루다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보건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는 단연코 안전문화인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문화를 안전보건관리·활동과 별개의 것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안전문화를 안전의식의 고양(高揚) 정도로 좁게 생각하는 편견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위하여 쓰였다. 그간 저자가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내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문화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이슈들을 소개하되 철저히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안전문화에서 안전은 넓은 의미의 안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보건(건강)을 포함한다. 따라서 안전문화를 보건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보건문제를 관리하거나 담당하는 이도 안전문화에 대한 지식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안전문화에 관한 거시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안전문화의 미시적 실천방안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이 책은 안전문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들 다 섭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론과 더불어 현장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느새인가 안전보건에 대해 박학다식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 안전문화에 관한 기본서로 발돋움하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안전문화에 관한 기본서가 한 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기본서가 없이는 학문 발전과 저변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저자 스스로부터 안전문화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였다. 가르치는 것이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책을 쓰는 것 또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에 관한 책이 이미 몇 권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안전보건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가 쓴 책으로는 처음이고, 교과서에 해당하는 책으로서도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문화에 관한 많은 학술서적과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는 그 중요성 치고는 너무 빈약한 상태이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성숙되는 데 자양분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이 안전문화에 지적 갈증이 있었던 분들에게 청량제의 기능을 했으면 하는 희망 또한 가지고 있다. 물론 안전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기까지 한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 같다고 기대하고 있다. ☺